

# 옛 편지는 전통 문화의 공간

아침을 열며



이승현  
강진 백운동 원림 동주

“만나는 것을 대신하는 편지를 쓰려고 오래전부터 생각하며 붓을 잡았지만 정신이 아득하여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모르고 그만둔 것이 여러 번이었습니다. 전해 들으니 바다 근처 풍토는 그다지 나쁘지 않고 여중은 풍부하며 아침마다 창문을 열면 해 뜨는 것과 구름이 모습을 바꾸는 것을 보며 바다 위 파도는 장관이라고 하더군요. 형(兄)이 수영이 비록 하얗게 됐으나 근력은 매우 강건하여 식사도 잘하고 눈이 밝아 깨알 같은 글자도 쓸 수 있으며, 잇몸과 어금니가 견고하여 치아로 살아 있는 전복이나 소라도 칼로 자르듯 씹을 수 있으며, 때로는 낚시대를 던져 고기를 잡으며, 때로는 촌 늙은이를 불러 모으며, 간간히 초대해 달려가서 마시고 먹고 놓고 가고 머무는 것을 마음 내키는 대로 하신다고 하더군요. 형은 진실로 낙천(樂天)을 완성한 사람이니 이보다 더한 기쁨이 있겠습니까? 저는 어느새 60세 늙은이로 머지않아 지하로 재촉할 것을 생각하며 한밤중에 일어나 앉아서 길게 탄식하며 세월의 부족함을 탄탄합니다. 옛사람은 만날 수 없으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당신을 그리워하니 소식을 전해 주길 바라고 바랍니다”

동강 이의경이 진도로 유배가 있는 원교 이광사에게 보낸 편지다.

동강은 백운동 원림 후손으로 사도세자 사부를 지냈고, 원교는 사상이자 원교체를 완성한 서예가다. 이 간찰로 인해 백운동 원림에 이광사의 글씨가 남아 전해진 연유를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광사 유배 생활의 일면을 볼 수도 있다.

“탁옹(다산)께서는 일찍이 문장으로 명망을 얻었고 예원(藝苑)에서 찬란히 빛을 발하셨는데 중도에 비운을 만나 남

쪽바닷가에서 초췌해지셨다. 공은 이마가 넓고 입이 크셨으며, 눈은 유성처럼 빛나고 목소리는 큰 쇠북처럼 우렁차으며, 용모는 아름다웠고 기상은 호탕하셨으며, 언변은 거리낌이 없고 풍채는 맑으셨다. 붓을 들어 먹물을 묻히지 않더라고 입에서 나오고 눈썹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모두 시와 문장이 아님이 없으셨다. 남들과 인사를 나눌 때면 나는 듯이 붓을 휘둘러 비록 짧은 글이지만 모두 주옥같은 시문이었다. 옥이 흩어지는 듯한 필법은 움직임이 아름답고 유택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하고 아끼게 하였다”

이 글은 백운동 7대 동주 자이당 이시현이 스승인 다산을 사모하는 글이다. 스승에 대한 제자의 존경이 흠뻑 드러나 있기도 하지만 다산의 용모가 그림처럼 자세히 묘사돼 얼굴 생김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매우 흥미로운 기록이다.

“아침을 먹은 뒤 최현과 더불어 백운동을 방문했는데 이곳은 이담로(李聃老) 공의 별업이다. 끝까지 깊고 고요하며 천석(泉石)이 빙 둘러 있다. 그가 운데 2칸 집을 지었는데 구조가 매우 정묘했다. 사방은 담장을 둘러쌓는데 담을 뚫어 산에서 내려온 물을 끌어들여 곡수(曲水)를 파서 만들고 다시 담에 난 구멍을 따라 흘러 나가게 했다. 곡수 사이에는 연꽃을 심은 두멍과 괴석 몇 덩이를 놓았고 뒤편에는 소나무가 바위 모서리를 휘감고 있었다. 정원의 바닥은 흰 모래를 깔았는데 매우 깨끗했다. 집 뒤편은 돌을 쌓아 층계 두 단을 만들고 오죽을 줄지어 심어 놓았는데 성글지도 그렇다고 뻣뻣하지도 않았다. 층계 위쪽의 평평하고 넓은 곳에 대어섯 칸 되는 집을 행랑으로 삼았으며, 행랑 안쪽으로 또 대어섯 칸 정도의 집을 지어 안채로 삼았는데 모두 지극히 정갈하고 아름다웠다. 안채의 사방에는 매화를 심어 돌렸다. 두 칸 집의 남쪽 담장에 난 작은 문을 따라 나가면 바위가 특 튀어나와 대(臺)를 이루었는데 그 이름이 동대였고 위쪽이 평평하고 둘둘어 50-60여명 정도가 앉을 만했다. 백운동으로 들어서는 길은

동백과 단풍나무가 줄지어 서 있고, 돌 길은 험하고 골짜기는 깊숙하고 고즈넉하다. 마을과 지적인 이곳에 이와 같은 선경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잠깐 동안 보고 즐기노라니, 두고 떠나고 싶지가 않았다. 주인이 속된 기운을 벗어난 가슴속의 운치를 갖고 있지 않다면 어찌 이런 곳을 마련할 수 있겠으며 원림의 배치와 꾸밈으로 보아 그의 구상과 실행하는 능력 또한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주인이 세속의 혼란 선비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 최(崔) 생(生)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서 헤어졌다”

이 글은 고산 윤선도의 손자 윤이흠 함평현감이 1698년 3월 백운동에 놀러 왔다 쓴 일기다. 백운동 원림을 사진처럼 묘사해 유람하고픈 흥취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백운동 원림을 복원하는 근거가 되는 중요한 기록이다. 옛 선인들의 간찰은 개인 간의 편지이자 기록이지만 문학, 사상, 경제 등의 역사 자료가 되고, 전통을 해독하는 퍼즐이자 문화의 일부가 된다. 은밀한 내용일수록 보배가 되니 부지런히 찾아 활용해야 한다. 소개한 세편의 글들은 실제 백운동에 전시관을 건립하게 된 단초(端初)가 되었다.

요즘 사람들은 편지나 글을 잘 쓰지 않는다. 글을 쓰는 것은 작가 같은 특정인의 전유물이 된 지 오래고 일반적인 소통은 괴이한 은어나 줄임말로 서로의 의견이나 정보를 주고받는 SNS가 대세다. SNS 소통은 밥 먹는 중에도 화장실이나 잠자다가도 오가니 신속하기가 번개 같지만 예의도 사상도 없으니 조선선비들의 간찰처럼 어찌 풍류와 의리가 난초꽃처럼 향기로운 수 있겠는가?

이제는 시를 짓고 그림도 그린다는 챗 GPT까지 활약한다니 문학의 쇠퇴나 문해력 저하, 세상의 인정과 풍속이 사나워지게 될까 걱정된다. 벼가 쌀이 되고 밥이 되고 술이 되는 것처럼 글쓰기는 문화를 부흥시킬 쌀인데 이대로 팽개쳐버리면 당시의 생활상이나 풍습 같은 민간의 원형과 기록문화가 사라질 것이고 융성하는 한류 문화의 공간도 텅 비게 될 것이다.

## 社說

### 신동진벼 매입 제한 다시 한번 속고해야

#### 토질 적합하고 소비자도 선호

정부가 전남 쌀 재배 면적의 20%를 차지하는 '신동진' 벼를 퇴출시키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공공비축미 매입도 제한한다고 한다. 하지만 전남의 토질에 맞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쌀 품종을 갑자기 교체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농민들의 반발도 크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쌀 재고량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고품질 품종과 우량종자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신동진과 새일미 등 다수확 품종을 오는 2024년까지만 공급하기로 했다. 진광과 새일품 품종은 올해부터, 신동진과 새일미 품종은 2024년부터 공공비축 매입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쌀이 남아도는 현실에서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지만 현장의 목소리와 동떨어지고 유예기간마저 주지 않는 것은 불통 행정의 단면이다.

신동진은 전남에서만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20%에 달한다. 전남의 토질에 적합하고 밥맛이 좋아 소비자가 선

호하는 품종이기도 하다. 농약을 적게 사용해 경쟁력이 높고 가격도 일반 쌀에 비해 높은 편이다. 여기에 전남의 대표브랜드인 풍광수도 또한 전체가 신동진 품종으로 신동진 벼가 퇴출될 경우 전남의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함께 농민들의 피해도 우려된다. 새로운 대체품종을 선택해 적응해야 하는 불편도 감내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2022년 생산된 쌀 45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시켰다. 쌀 공급이 넘쳐나고 소비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과잉 생산을 막으려는 정부의 선택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쌀이 남아도는 근본 원인은 과잉 생산보다 의무적으로 할당된 수입쌀의 영향이 크다. 토질에 맞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종을 일방적으로 퇴출시키는 것도 부당하다. 정부는 농업 현장과 긴밀한 소통을 거쳐 근본적인 쌀 수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 농민이 겪을 애로사항과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모든 불편과 손해를 농민들에게만 강요할 수는 없다.

### 광주 건축물 높이 제한 해제 명암 고려를

#### 도시경관 제도개선 방안 발표

광주시가 조망권 보호를 위해 '상업지역 40층, 주거지역 30층'으로 규제했던 건물 층수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2년만에 도시 발전과 시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 정책이 변화하는 것이어서 행정의 연속성과 형평성 저해를 우려하는 지역내 목소리도 없지 않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경관 및 건축물 디자인 향상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강 시장은 "지금까지는 건물을 지을 때 획일적인 층수 제한만 지키면 됐지만, 앞으로는 층수는 물론 주변 환경·건물 등과 얼마나 어울리는지, 조망권을 침해하지는 않는지, 시민의 주거와 삶의 질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 등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수 있도록 차등 관리하겠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런 도시 정책의 방향과 취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주요 시정이 2년만

에 크게 바뀔데 대한 혼란과 후유증이 예상돼 우려를 떨쳐낼 수 없다.

광주시는 민선 7기 시절인 2021년 7월 고층 아파트 난립에 따른 무등산 조망권 침해 등 부작용을 막겠다며 준주거지와 상업지는 40층, 제2~3종 일반 주거지역은 30층까지만 건축물을 짓도록 '건축물 높이 관리 원칙'을 만들어 시행했다. 이 건축물 높이 관리 원칙은 새로운 도시 경관계획 수립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긴급 처방이었다. 민선8기를 맞은 광주시는 도시 경관계획 재정비 시기 도래에 따라 대폭 손질에 나선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대해 일부시민들은 단체장이 바뀌면서 시정이 요동을 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 민선7기 건축물 높이 관리 원칙이 적용된 아파트 건설 업체와 입주자들의 불만도 예상된다. 건축물 높이 제한을 푸는 것이 시의 구상대로 도시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지 아니면 건설업체의 사업성을 높여주는 것이 될 지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시는 앞으로 법정계획을 수립하면서 개선방안이 가져올 명암을 면밀하게 분석해 시민들이 공감할만한 내용이 담기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서석대



“선비라면 사흘을 떨어져 있다 만났을 땐 눈을 비비고 다시 대해야 할 정도로 달라져 있어야 하는 법입니다. (士別三日, 卽當刮目相對)” 중국 삼국시대 오나라 장군 여몽이 평소 자신을 경시했던 재상 노숙에게 한 말이다. 이는 무술만 연마하고 학식이 없던 여몽이 당시 임금 손권의 당부에 열심히 학문을 갈고 닦은 자신감이었다. ‘괄목상대(刮目相對)’. 깜짝 놀라 눈을 비비고 다시 본다는 뜻으로, 안 본 사이에 부쩍 재주가 늘었음을 의미하는 말이다.

광주를 연고로 한 프로야구 KIA타이거즈가 2023시즌을 대비해 미국 애리조나에 1차 스프링캠프를 차리고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다. 특히 지난해 기대 만큼의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던 KIA타이거즈 기대주들이 ‘괄목상대’를 노리며 발톱을 날카롭게 갈고 있다.

내야수 김도영(20)은 1차 지명 제도가 마지막으로 시행된 2022년 신인드래프트에서 KIA의 지명을 받아 프로 데뷔했다. 제2의 이종범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시범경기 4할 타율로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으나, 4월 타율 0.179로 부진한 뒤 점차 그라운드에서 모습을 감췄다. 하지만 올시즌 다시 주목받고 있다. 김종국 KIA 감독은 2023시즌 키플레이어로 김도영을 꼽고 있다. KIA 관계자들도 애리조나 스프링캠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선수 중 하나로 김도영을 지목하고 있다.

외야수 김석환(24)도 2022시즌 '제2의 이승엽'으로 불리며 거포 유망주로 큰 기대를 받고 데뷔 후 처음으로 개막 엔트리에 합류했으나 1군 벽을 빠져리게 느꼈다. 김석환은 4월 한 달 동안 좌익수로 기회를 얻었으나 1할대 타율에 그치며 2군으로 내려갔다. 이후 1군과 2군을 오르내리며 결국 51경기 타율 0.149·14안타·3홈런·7타점의 초라한 성적으로 시즌을 마감했다.

지난 시즌 후 호주프로야구(ABL) 질롱코리아에서 맹활약을 펼치며 또 한 번의 1군 경쟁에 나설 가능성을 한층 키운 김석환은 스프링캠프에서 '포스트 최형우'로 주목받고 있다.

2년차 좌완투수 최지민(20)은 불펜의 히든카드로 부상하고 있다. 최지민은 입단 첫 해인 2022년 스프링캠프와 시범경기에서 공략하기 까다로운 투수로 평가받으며 큰 기대감을 갖게 했다. 하지만 정규리그 LG와의 개막전 중간투수로 나서 1이닝 3피안타 3사사구 5실점 부진을 겪으면서 자신감을 잃었다. 결국 5경기 등판이 1군 성적의 전부였다.

최지민은 올해 애리조나 캠프에서 스피드 업과 제구가 좋아지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김도영, 김석환, 최지민이 올시즌 정규리그에서 '괄목상대'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동환 문화체육부장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기수	편집국장 박성원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461	전남취재부	(062)510-0336
사회부	(062)510-0340	뉴스콘텐츠부	(062)510-0321
경제부	(062)510-0380	사진부	(062)510-0391
구독료	월 1만원 1부 5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